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제24회 한·일도시개발 협력회의 참석 관련)

2008. 10

기 간 : 2008. 9. 8~2008. 9. 12

출장지 : 일본

출장자 : 왕광익 책임연구원

I. 회 의 개 요

1. 회의목적

- 한·일 양국간의 도시분야 개발 및 보전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증진
 - ※ '84년 이후 매년 서울과 동경에서 교대로 개최(금년 제26회)
- 금회는 제26회째로 기존도시의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등에 대한 양국간의 교류·협력 증진

2. 주요 일정

- 9. 8.(월) : 요코하마 항만지구 및 동경 롯본기힐즈 시찰 및 일본측 환영연 참석
- 9. 9.(화)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한국측 답례연 개최
- 9. 10.(수) : 나고야 중심부, 오아시스21, 센트럴 파크, 나디아 파크 시찰
- 9. 11.(목) : 가나자와 히가시찾집 거리, 켄로쿠엔공원, 21C미술관 시찰
- 9. 12.(금) : 귀국

3. 대표단 구성 : 총 12명

- 한국측 대표단 : 이영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외 11인
- 일본측 대표단 : 加藤 利男(Katou Toshio) 국토교통성 도시·지역 정비국장외 18인

□ 한국측 대표단 명단

구분	소속 · 직위	성명	연락처
단장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이영근	██████████ ██████████
간사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장	김정희	██████████ ██████████
단원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소성환	██████████ ██████████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김성호	██████████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이규열	██████████ ██████████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박준수	██████████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정승원	██████████ ██████████
	국토연구원	왕광익	██████████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정시윤	██████████ ██████████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	정완영	██████████ ██████████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처	김덕진	██████████ ██████████
	주일본한국대사관 사)03-5476-3243	김학재	(주)일본 한국대사관

□ 일본측 대표단 명단

○ 團 長

-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국장 加藤 利男(Katou Toshio)

○ 團 員(18名)

- 대신관방심의관 石井 喜三郎(Ishii Kisaburo)
- 대신관방심의관 松田 紀子(Matsuda Michiko)
- 대신관방심의관 門野 秀行(Kadono Hideyuki)
- 하수도부장 松井 正樹(Matsui Masaki)
- 총무과장 大藤 朗(Ootou Akira)
- 도시·지역정책과장 内田 俊彦(Uchida Toshihiko)
- 도시·지역안전과장 高橋 忍(Takahashi Shinobu)
- 도시만들기추진과장 佐々木 晶二(Sasaki Syouji)
- 시가지정비과장 松田 秀夫(Matsuda Hideo)
- 가로교통시설과장 松井 直人(Matsui Naohito)
- 공원·녹지경관과장 小林 昭(Kobayashi Akira)
- 하수도기획과장 田辺 義貴(Tanabe Yoshitaka)
- 하수도사업과장 岡久 宏史(Okahisa Hirobumi)
- 유역관리관 清水 亨(Simizu Tooru)
- 대도시정책기획관 小藺 正典(Kozono Masanori)
- 기획전문관 倉野 泰行(Kurano Yasuyuki)
- 도시·지역정책과장보좌 三富 健史(Mitomi Takeshi)
- 도시·지역정책과 계장 松田 純一(Matsuda Jyunichi)

Ⅱ. 주요발표 및 토의사항

1. 전체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08. 9. 9.(화) 10:15 ~ 12:30,
- 장 소 : TORANOMON PASTORAL HOTEL 미모자室
- 회의 참석자
 - 한국측 : 이영근 도시정책관외 11명
 - 일본측 : 加藤 利男(Katou Toshio)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국장외 18명

□ 발표 내용

① 주제 : 신정부의 주요 도시정책 이슈(도시재생, 토지이용원활화, 환경디자인 등)

- 발표자 :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장 김정희
- 발표내용 요약
 - 한국의 도시현황과 미래를 전망하고 각국의 정책비전과 함께 대국민조사에 기초한 새정부의 도시정책 비전을 소개
 - 비전 : 함께 번영하는 행복터전
 - 3대목표 : ①세계화 호흡하는 열린도시 ②자연과 함께하는 환경공생도시 ③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 5대 전략 : 도시형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성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시민중심의 창조적 도시문화 육성
친환경적·에너지절약적 도시공간 조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복지환경 구축
 - 5대전략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소개

○ 질의응답 내용

-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 문제는 일본에서도 주요정책 과제인데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

⇒ 전 정부에서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건설위주로 추진하여 왔는데 새 정부는 기존의 지방도시의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 도시방재와 관련하여 홍수대책으로 일본에서는 빗물 흡수를 위해 가능한 표면포장 억제나 건축물별 저수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책은

⇒ 한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중으로, 신도시·재생도시에서는 침투성 포장 활성화, 녹지율 활성화(침투성포장은 녹지율에 포함 등), 하천 저류시설을 보충하려고 계획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교환 또는 분과회의에서 논의

② 주제 : 저탄소형 도시지역 조성 추진과 「환경 모델 도시」의 선정

- 발표자 :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책과장 内田 俊彦(Uchida Toshihiko)

○ 발표내용 요약

- 저탄소형 도시·지역 만들기 추진
 -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 : 병원, 학교 등 공익시설과 대규모 집객시설을 기존시가지로 입지 유도, 빈 빌딩 재생, 도시·지역 종합교통전략의 추진 등
 - 도시 녹화 추진 및 녹지 보전 : 공공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정비, 사유지에 효과적인 녹색창출
 - 하수도에 있어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 정제된 바이오 가

스를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로 공급, 도시개발시 미이용 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 냉난방 시설의 정비 및 네트워크화

- 환경모델 도시 선정

- 지자체와 연계하여 온실가스의 대폭 삭감 등 높은 목표를 제시, 이에 도전하는 10개 도시를 선정하여 환경모델도시를 계획
- 분야별 어프로치를 통합어프로치에 의한 대응으로 진화 필요
- 82개 도시 응모중 환경모델도시는
 - 대규모 도시 : 요코하마, 기타큐슈
 - 지방중심 도시 : 오비로시, 도야마시
 - 소규모 시읍면 : 시모카와쵸, 미나마타시
- 금년중 선정된 모델도시는 제안에 근거하여 액션플랜 책정 및 선행사업 실시
- 환경모델도시에 대한 지원
 - 환경모델도시의 요망에 의해 액션플랜의 책정 및 금년중 실시하는 선행사업 지원
 - 금년이후의 대응에 대한 지원으로 관계관청이 우선적 중점적 지원, 내각관방은 부처별 예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횡단적인 방안에 대응, 기타 저탄소 도시 추진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필요 경비 지원

○ 질의 응답 내용

- 2007년 일본 국토교통성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공간구조 개편으로 110만t-CO2의 감축계획을 수립한 것을 자료를 통해 봤는데, 어떻게 수립한 것인가?
 - ⇒ 국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고야 등 특정도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2008년 4월 환경성 기후변화팀과 인터뷰시 기후변화 대응 적응

부문은 국토교통성이 전담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 기후변화 적응부문은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국토교통성이 전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분과회의에서 답변할 것임

□ 시사점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나 지진 등 각종 극단적인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시급히 마련할 필요
 - 특히, 일본은 잦은 지진과 태풍 등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잘 정비되어 있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입수하고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음
- 저탄소형 도시만들거나 환경모텔 도시사업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해가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

II. 도시정책 및 교통 분과

□ 회의 개요

- 일 시 : '08. 9. 9.(화) 13:30 ~ 16:30,
 - 장 소 : TORANOMON PASTORAL HOTEL 스이센室
 - 회의 참석자
 - 한국측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소성환사무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왕광익
 - 일본측 : 도시지역정비국 가로교통시설과 기획전문관 요시다 노부히로
- 도시지역정비국 도시계획과 야마시타 타카미치

□ 발표 내용

① 주제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간구조 측면의 정책방향

- 발표자 : 국토연구원 왕광익
- 발표내용 요약
 - 한국에서도 도심열섬효과, 해수면의 상승 등의 기상이상 심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비한 공간계획 측면의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공간계획 측면에서 완화와 적응, 상호균형을 이루는 대응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 공간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임
 - 해외의무감축국에서는 완화측면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적응측면에서는 국가적응체계를 개발하여 시행중에 있음
 - 한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공간계획 측면에서 저탄소 도시공간

구조로의 전환, 기후변화적응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산업을 활용한 도시 및 지역계획 수단 도입, CO₂ 흡수원 확보를 위한 녹색도시 구현, 국토·도시분야 DB구축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

○ 질의응답 내용

- 일본도 도시구조 측면의 면(面)적인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작년부터 국토교통성에서 시작한 부분으로 상호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저탄소형 마을만들기 조사를 작년에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자료에 대한 공유 부탁
- ⇒ 자료를 확인하여 송부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메일로 현재 우편으로 보고서를 송부하였다고 2008.10.2로 확인메일 받았음

○ 시사점

- 한국의 기상이상 심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공간계획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도시계획 정책 차원의 공간구조측면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일본도 최근에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 시 우리나라가 해외에 정책 역수출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가능함
- 의무감축국의 완화와 적응 측면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간계획측면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② 주제 : 종합 교통 전략과 전략적 모빌리티·매니지먼트 추진

○ 발표자 : 요시다 노부히로

○ 발표내용 요약

- 인구감소·초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지방도시에서의 중심 시가지 쇠퇴, 고령자들의 이동확보, 지구온난화 대응 등의 관점에서 마을만들기와 도시교통이 하나 되는 시책과 사업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지방 공공 단체는 도시 구조의 집적을 촉진시키고 다른 지역을 대중교통 네트워크로 유기적 연계를 도모한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도 및 자전거 이용을 통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공공단체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간의 이용촉진을 위한 ‘종합교통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종합교통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모빌리티·메니지먼트(SMM)’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상호 보완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질의응답 내용

- “선도적 도시환경형성 종합지원사업”에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현황 자료와 국토교통성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
- ⇒ 도시계획과에 확인하여 관련 자료에 대해서 차후 송부하도록 하였음 (후속조치 : 사업은 최근 시작되어 현황은 없으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 이메일로 연락이 왔음)

○ 시사점

-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시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

하여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을 목표로 지방 공공단체에서 종합적 도시교통 전략을 추진중에 있음

-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간의 연계를 통해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의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종합교통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전략적 모빌리티·매니지먼트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상호 보완하며 추진해가고 있음

Ⅲ. 도시개발분과

□ 회의 개요

- 일 시 : '08. 9. 9.(화) 13:30 ~ 16:30,
- 장 소 : TORANOMON PASTORAL HOTEL 린도室
- 회의 참석자
 - 한국측 :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김성호사무관, 도시재생과 이규열사무관
 - 일본측 : 지역만들기 추진과 기획전문관 Kouichi Sibutani
시가지정비과 과장보 Souichiro Yasukawa

□ 발표 내용

① 주제 :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

- 발표자 : 신도시개발과 사무관 김성호
- 발표내용 요약
 -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01년 동탄신도시를 시작으로 제2기 신도시 건설 추진
 - 제1기 신도시와는 달리 신도시별 벤처, 첨단, 생태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테마부여를 통한 자족성 확보 노력
 - 특히, 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생태계획, 신재생에너지도입, 대중교통위주의 교통계획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
- 질의응답 내용
 - 가) 일본 다마신도시의 경우 일명 오울드타운(old town)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2019년부터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은 그 이후에도 인구 및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가구분화, 소득증가, 기존주택 멸실 등으로 생기는 중장기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신도시를 통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제2기 신도시는 제1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제적 지속성 제고를 위하여 단순 주거기능 위주의 개발이 아닌 연구·업무·문화·공업 등 모든 도시적 용도를 포괄적으로 계획하여 모도시와의 교통비용을 줄이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나) 새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하여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주택공급과 경기상황에 따른 민간공급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도시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또한,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능 제고 차원에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의 사례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생태계획, 신재생에너지 도입,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자족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2기 신도시를 보완해 가는 방안이 필요
- 이를 위하여 인근지역을 포함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신도시 역할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자족시설 유형에 따른 입지규모 및 배치형태 등을 검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자족기능도 완비한 신도시로 개발하여 경쟁력과 자족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

② 주제 : 한국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방안

○ 발표자 : 도시재생과 이규열 사무관

○ 발표내용 요약

-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쇠퇴
-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중소도시재생
- 현행의 중소도시발전사업을 통합하는 방안 마련등

○ 질의응답 내용

- 일본도 오래전부터 중도시의 재생방안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진행중이며, 한국 중소도시의 현황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함

⇒ 한국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인구 감소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저소득주민비율, 20년 이상노후주택 및 65세 이상 노령화비율 등이 각각 높게 나타남

- 중소도시 재생방안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궁금함

⇒ 중소도시재생방안 마련을 위하여 '07년부터 R&D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새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에 부합하는 안방을 마련하고자 함

○ 시사점

- 일본도 중소도시재생에 대하여 관심이 높으며 많은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쇠퇴하는 등 유사한 상황임을 확인

③ 주제 : 시가지 정비에 지역 매니지먼트 대응

○ 발표자 : 시가지정비과 과장보좌 Sauichiro Yasukawa

○ 발표내용 요약

- 이미 정비된 지구에 있어서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거리경관의 약화 및 공지 발생
- 쾌적하고 매력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지역 매니지먼트의 대응이 중요
- 시가지 정비사업 시행시 사업을 기회로 지역이 크게 변모하므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해당 지역의 매니지먼트에 임할 경우 사업 후 양호한 도시환경 유지를 기대 가능

○ 질의응답 내용

가) 시가지 조성계획 및 운영관리에 대한 비전 형성과정과 사업주체, 주민조직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해조정 과정은?

⇒ 제안자, 사업주체 그리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분위기 양성과 합의형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함

또한, 지역조성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을 결성하여 셋백

공간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지역조성규칙 또는 디자인 컨트롤을 위한 경관디자인 규칙 등을 마련

나) 지역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형태 중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형태는 어떠한 형태라고 평가하는지 ?

⇒ 국토교통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한 사례는 없으며 해당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한 조직형태 가능

예를 들면, 시가지 정비 및 지역 매니지먼트 추진시 수익성을 고려한 영업위주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가 적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NPO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지자체별로 한정되어 있는 투자여력을 고려하여 집약적 도시구조 실현을 목표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시가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도입
- 특히, 정부차원이 아닌 주민,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매니지먼트를 전개하고, 정부는 이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사례가 인상적
- 현재 본격적으로 신도시, 뉴타운 등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시 향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노후화로 인한 시가지 및 거리경관 악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리체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④ 주제 :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지역 조성 회사

- 발표자 : 지역만들기추진과 기획전문관 Kouichi Sibutani
- 발표내용 요약
 - 인구 감소사회에 대응한 집약형 도시구조로 전환을 위해 시가지 정비시책에 있어서도 집약개발이 중요
 - 쾌적하고 매력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지관리·운영을 실시하는 지역조성활동(매니먼트)이 중요
- 질의응답 내용
 -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조성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조성회사의 성격은
 - ⇒ 지역조성회사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겸비하며 행정 및 민간 사업자만으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임
 - 지방도시에 대하여 도보권내에서 생활이 가능한 콤팩트시티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도시의 콤팩트시티가 필요한지 여부
 - ⇒ 지방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하게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콤팩트시티가 필요함
- 시사점
 - 가용토지 감소와 교통문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에 대응하여 집약형도시구조로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함
 - 구획정리사업단계에서 지역조성협의회가 관리 조직하는 중간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등의 유지 관리를 실시
 - 지역 조성 협정협의회는 마스트 아키텍트를 초빙하여 디자인규칙을 책정, 디자인 컨트롤을 실시

IV. 공원 · 녹지 분과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08. 9. 9.(화) 13:30 ~ 16:30,
- 장 소 : TORANOMON PASTORAL HOTEL 아야메室
- 회의 참석자
 - 한국측 :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박준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정시윤
 - 일본측 :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국 공원녹지경관과 와키사카 류이치, 오오이시 토모히로

□ 발표내용

① 주제 : 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효용

- 발표자 :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사무관 박준수
- 발표내용 요약
 -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및 그간의 전개과정
 - 개발제한구역 편익추정의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편익개념 및 추정방법
 - 개발제한구역 편익 추정결과
 - 개발제한구역 편익 추정결과의 의미
- 질의응답 내용
 - 개발제한구역 현황중 점처럼 구멍이 난 부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중 집단취락,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인해 해제된 지역이라고 답변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가 갖는 의미 및 재원사용방법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은 철저히 보존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입지

하는 시설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재원은 주민
지원사업 등으로 활용한다고 답변

② 주제 : 한강 RENAISSANCE PROJECT 추진계획

○ 발표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정시윤

○ 발표내용 요약

I.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개요

- 추진목표 : 한강의 문화·경제적 가치창출
⇒ 도시경쟁력 향상

- 8대 실현과제

1.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2. 워터프런트 타운 조성
3. 한강변 경관개선
4. 서해 연결 주운기반 조성
5. 한강 중심의 Eco-Network 구축
6.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7. 한강변 역사유적 연계 강화
8.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

II. 8대 실현과제 개요

1.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 한강변 지역을 새로운 도심권으로 육성
2. 워터프런트타운 조성
 - 기성시가지와 수변 연결 및 강변 신시가지 개발
 - 이전적지 활용 및 주거지 연계 수변복합지구 조성
3. 한강변 경관조명 계획

- 한강교량 : 한강교량의 구조미와 상징감 표현
- 한강공원 : 안전한 보행과 산책로 형성(안전성), 눈부시지 않는 야간경관(쾌적성) 조성

- 주변건축물 : 서울의 다이나믹한 경관감을 연출

4. 서해 연결 주운기반 구축

- 주운수로 확보 및 신곡수중보 갑문화 정비
- 국제터미널 및 선착장 확충

5. 한강 중심의 Eco-network 구축

- 인공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

6.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 대중교통과의 연계성강화 및 기존 접근로 개선
- 한강연결 지상 보행녹도(Green Way) 조성
: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한강으로 연결된 보행자 도로

7. 한강변 역사유적 연계 강화

- 역사유적과 연계한 강변공원 특화
- 시, 공간에 따른 역사문화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

8.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

- 중심대권역 : 용산, 여의도를 중심으로한 업무,문화

거점

- 강서대권역 : 환경,역사의 재생을 통한 친환경 거점
- 강동대권역 : 어뮤즈먼트, 스포츠, 역사체험(에듀테인먼트)의 거

점

○ 질의응답 내용

- 한강은 하천으로서 홍수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 홍수에 안전하도록 호안과 제방을 보완하면서 제방과 강변도로 등으로 단절된 접근로를 확보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기능을 보완하는 하는 종합계획임.

- 플로팅 아일랜드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보임, 언제 완성되는

가?

⇒ 플로팅 아일랜드는 단순히 수면과 둔치로만 형성되어 있는 한강공원에 공연과 전시기능을 보완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2009년도에 완성될 예정임.

○ 시사점

- 도시내 하천을 홍수에 대한 방재용으로만 이용하는 것 보다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계획으로 공감대가 형성됨

③ 주제 : 역사·경관지역 조성을 위한 정책 사례

○ 발 표 자 : 국토교통성 공원녹지경관과 와키사카 류이치

○ 발표요지

- 역사지역 조성을 위한 발자취(메이지 ~ 현재)
- 지금까지의 역사지역 조성을 위한 대응책
 - 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법, 경관법 등 규제위주정책
- 지금까지 대응책의 문제점
 - 역사적 풍치를 잃어버린 현상
- 역사적 풍치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 역사적 풍치향상 계획 수립, 시행

○ 시사점

- 포괄적으로 역사적 풍치조성을 위한 법령제정보다는 개별적 특구별 특이성을 반영하여 관련된 법령조항이 필요
- 역사적 풍치 등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제약을 두는 규정보다는 지원을 통한 자발적 조성이 필요
- 기존의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역사적 풍치 등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
-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적 경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역맞춤형 개발정책이 바람직

④ 주제 : 민간참여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공원녹지시책

○ 발표자 : 국토교통성 공원녹지경관과 오오이시 토모히로

○ 발표요지

- 수도권 녹지면적의 추이(요코하마시에 있어 녹지추이)
- 핫아일랜드현상(지구온난화)
- 도시녹지시책 체계
 - 다양한 사업수법, 제도로써 도시의 녹색보전정비
 - 녹화지역제도, 녹화시설 정비계획 인정제도
 - 사회, 환경 공헌 녹지 평가시스템 등

○ 시사점

- 녹화의무확보 비율제도가 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정책을 법령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민간에 의해 개발되는 공원사업은 현재 동경도 시바공원, 동경

돔 시티, 세와가야쿠 스포츠센터 등이 있는데 이는 민간개발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가능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녹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상당히 귀감
- 민간이 참여하는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여 창의성 확보가 필요

V. 하수도 분화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08. 9. 9.(화) 13:30 ~ 16:30
- 장 소 : TORANOMON PASTORAL HOTEL 사츠키室
- 회의 참석자
 - 한국측 : 수자원공사 정완용, 환경관리공단 김덕진
 - 일본측 : 하수도기술개발관 이시이 히로유키, 유역하수도계획조정관 이노우에 시게하루, 하수도기획과 과장보좌 혼다 야스히데, 하수도기획과 자원이용계장 스즈키 아야코

□ 발표 내용

① 주제 : 하수슬러지 저감 및 재활용 확대방안

- 발표자 :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 차장 정완영
- 발표내용 요약
 - 슬러지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 하수슬러지 발생량('06년 271만톤/년→'11년 348만톤/년 예측)
 - 처리방법 2006년 기준으로 해양투기 68%, 재활용 11%, 소각 13%, 육상매립 1%의 분포로 육상매립 제한으로 해양투기증가
 - 다른나라의 슬러지 처리현황
 - 일본의 경우 소각이 80.6%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4년 4월1일부터 100%소각후 소각재를 시멘트원료화나 복토재로 사용
 -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매립, 해양투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하수슬러지를 자원으로 인식, 농업지대 및 복원용으로 재활용되는 등 농지환원에 주로 이용하고 있음.
 - 슬러지 처리방법의 변천사
 - 과거에는 매립, 현재는 해양투기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향

후 슬러지 저감 및 자원화등의 방법의 방법으로 변화중

- 하수슬러지 저감기술

- End Of Pipe 개념에서 Source Control 개념으로 진화
- 과거 슬러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활성슬러지법에서 슬러지 발생량이 적은 처리법으로 대체 변경하거나 신규시설에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적은 처리프로세스의 적용이 요구됨
- 저감기술 소개

. S-TE 프로세스

활성슬러지를 호열성 효소에 의해 가용화, 미생물이 분해하기 쉬운 형태의 유기물 공급으로 기존공정에 비해 슬러지 발생량이 없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발생도 없어 친환경 시스템, 또한 경제성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 슬러지 저감형 하수고도처리 기술

고도처리공정에 슬러지 저감시설을 결합한 기술로 자산화에 의한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발생된 슬러지에 대해 알칼리와 오존산화로 파괴, 슬러지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술임.

- 슬러지 재활용 기술 소개

. 하수슬러지 부숙처리

경남 고성군에 설치된 시설로 입형다단형 하수슬러지 퇴비화 공정으로 포장단위를 세분화 하여 활용성을 높인것이 주요 성공요인이며 처리단가는 소각에 비해 20%정도 저렴함.

. 건조슬러지 및 생활쓰레기 혼합소각

환경부에 최근에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생활쓰레기와 슬러지의 혼합소각 사례로서 단독소각 방식 대비 23%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건분화 처리

인근의 제지공장에 발생하는 소각재를 탈수케이크와 혼합, 함수율을 35%저감하여 인근의 시멘트 공장에 공급하는 공정으로 주위의 환경 및 여건을 반영한 가장이상적인 사례로 평가

- 현안문제점

- 슬러지 저감기술에 대한 신뢰성부족으로 현장적용 기피
- 적용기술의 안정성 및 운영기술의 미확보
- 재활용제품의 사용처의 한계
- 건강, 위생상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 현행 슬러지 관련법의 제한사항

- 대안모색

- 우수기술의 적용사업장에 대해 제도적 지원
- 주변여건을 고려한 처리방법의 선정
- 폐기물 총량관리제 도입
- 슬러지 처리의 광역화, 집약화 도모
- 재활용 물질에 대한 수요처 확대
- 현행 슬러지 관련법의 제한사항(직매립금지규정등)

- 정부시책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활용 방안 강구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활용이 가능한 경우 혼합소각
- 슬러지 처리의 광역화, 집약화 도모
- 매립가스(LFG)를 회수, 재활용경우 매립허용
- 2개이상 지자체가 광역시설 건설경우 인센티브 부여

○ 질의응답 내용

- 한국의 하수슬러지의 최종처분중 해양투기에 관한 실행시스

템이 관 주도인지 민간 주도 인지?

⇒ 94년 이후 직매립 금지조치로 인해 하수슬러지 최종처분방
법이 해양투기로 집중화 되었으나, 2011년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양투기 금지예정임. 최종처분 행위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나,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
자체가 결정함.

-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피해보는 이해관계자는 없는지?

⇒ 하수슬러지 최종처분방법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
해관계자는 해양투기 대행업자로 예상되나, 2011년 까지
준비기간이 있고, 슬러지 구성성분에 따라서는 일부 해양투
기 가능한 부분도 있어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End Of Pipe 개념에서 Source Control 개념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에 관한 연구개발의 확대 및 보급이 시급함.
- 슬러지의 자원화 개념 접근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

② 주제 : 합류식하수도의 월류수 관리현황

○ 발표자 : 환경관리공단 팀장 김덕진

○ 발표내용 요약

- 합류식하수도 설치현황 및 월류현황

- 기초자치단체의 약 10%, 처리구역면적의 약 20%, 하수처리인
구의 약 30%가 합류식 하수도
- 우천시 빗물과 혼합된 하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미처리유출
 - . 동경도의 우수토구 약 800개소에서 연간 약 30회 월류
 - . 오오사카시 도톤보리천의 우수토구 약 28개소에서 연간 85

회의 강우중 70회 월류

- 한국 하수도 보급현황 및 합류식하수도 현황
 - 하수도 보급률('06년 85.5% → '15년 92%목표)
 - 전국 165개 지자체의 729개 처리구역중 합류식은 476개소로 65%를 차지하고, 면적대비로도 약 61%를 차지함.
- 해외의 CSOs관리 현황
 - 미국은 연방법으로 1994년부터 조사를 통한 증명방법이나, 규제를 통한 시설수단으로 규제
 - 영국은 UPM(Urban Pollution Manual, 1998년)을 통해 친수이용 정도에 따라 CSOs발생빈도를 설정
- 한국의 CSOs 오염부하
 - 4대강 수계오염 배출부하(BOD기준)의 22~37%가 비점오염원에 기인
 - 비점오염원 부하량의 절반이상(52%)가 도시에서 발생
 - 도시비점중 대부분을 CSOs가 차지, 발생량 기준으로 하수가 85%, CSOs가 15%이나, 하수는 하수처리장서 처리되므로, 방류수역의 오염부하는 CSOs가 전체의 약 61%를 차지함.
 - CSOs발생농도는 평균 75~113mgBOD/L정도이나, 강우초기의 최대피크농도는 약 224~732mgBOD/L로 약 3~10배정도 고농도 유출
- 한국의 CSOs 저감 대책
 - 기존시설(유수지 및 빗물펌프장등)을 활용한 CSOs처리 시설 검토
 - CSOs 저감시설 사업량 산출의 체계화
 - 처리분구 단위의 시설계획, 처리구역별 최소사업단위화, 지자체별 사업집행단위화를 통한 사업의 권역화 및 체계화 확립

- 한국의 CSOs발생 부하량 추정 및 장단기 사업비
 - 합류식 하수도 처리구역 475개에서의 BOD발생 원단위를 활용한 발생부하량 약 95,000톤BOD/년
 - 단기사업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투자계획((09년~15년)까지의 투자계획으로 총 사업비 약 8조2,400억중 약 6,000억이 소요예상-단기사업에 따른 삭감비율은 약 4.3%로 추정
- 한국의 CSOs대책 시범사업(구리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CSOs저감을 목적으로 약 206억원의 예산으로 구리시 하수처리장내 우수저류시설 설치함.
 -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2.5Q이상을 저류용량 약 27,000 m³의 저류조로 유입시키고, 이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우수는 처리용량 2.5CMS의 간이처리시설을 통해 최종 방류수역으로 방류시킴.
 - 기대효과
 - 설치전후의 월류부하량은 72%(BOD기준)삭감하고, 이결과 방류수역의 수질은 BOD기준 약 30%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

○ 질의응답 내용

- CSOs개선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적극적도입 의지여부)
 - ⇒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최대 70%까지 국비보조가 지원되나, 지자체의 CSOs관리 의지 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초기사업 추진시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되, 단기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
- CSOs 대책사업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당근책은?
 - ⇒ 한국은 4대강 특별법을 통해 4대강 유역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염원을 지자체별로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여, 이 총량

범위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CSOs관리를 통해 삭감된 부하량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삭감량으로 인정받아 지역개발행위에 대한 허용용량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사점

- 한국은 최근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에 대한 관리에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외국과 같은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추진력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일본의 합류식 하수도관련 법정비의 절차 및 법과 관련된 지침등의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여, 법제정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주제 : 하수도자원 · 에너지순환의 형성

○ 발표자 : 하수도기술개발관 이시이 히로유키

○ 발표내용 요약

- 자원 및 에너지고갈 문제 및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 세계 자원 및 에너지 수요는 향후에도 대폭적 증가가 전망
 - 자원 및 에너지의 대량소비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이 현저히 나타남.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장래 전망
 - “도쿄 의정서”에 의거 2010부터 약 6%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함
- 하수슬러지의 유효이용 현황
 - 하수슬러지의 유효이용 비율은 점차로 증가함

- 매립 및 건설자재 활용위주에서 녹농지, 시멘트 원료화 등 재이용 용도가 다양해지고 최근에는 연료화등 새로운 이용 용도로 점진적 전환추세
- 하수슬러지를 바이오메스 자원으로 인식전환
 - 생분해성 양호 /도시에서 발생(생산)/발열량이 높음
 - 메탄가스 이용/고형탄화 연료 등
 - 하수슬러지 자원화 기술개발(lotus 프로젝트추진:05-08년)
 - 연간 발생 슬러지 223만톤(건조중량)중 178만톤 바이오메스
 - 이중 녹농지 이용이 약 12%이고, 에너지 자원화는 약 14.6%
- 하수도 자원 및 에너지 활용가능성 및 현황
 - 하수슬러지 전량 에너지자원화시 36억 kWh/년 (약67만세대 연간 소비전력량에 해당), 현재 약 10%미만 활용
 - 하수열 이용시 7800Gcal/h(약 1500만 세대 연간 냉난방열원에 해당), 활용사례3개소 정도
 - 인 회수를 통해 일본연간 수입량의 14%를 회수가능, 현재 회수량 약10%
 - 처리장내 태양과, 풍력, 소수력 발전등 발전가능량 23억kWh/년으로 약 43만세대 연간 전력소비량에 해당, 현재는 약0.2%만 활용
- 순환형 시스템을 위한 정책
 - 하수도와 다른분야 사업 연계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의 순환 시스템 구축
 - 교통과 연계하여 소화가스를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로 공급 (코베시)
 - 가스회사와 연계하여 소화가스를 도시가스의 원료로 공급 (나가오카시)

- 전력회사와 연계하여 탄화슬러지를 석탄대체 연료로 화력발전소에 공급(동경도)
- 민간활용형 지구온난화 대책 하수도 사업
- 하수슬러지의 자원화 유통, 판매, 이용에 대해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에 대해 간접지원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CO2 삭감 효과가 일정이상인 경우, 관련시설 건설비에 대해 간접보조

○ 질의응답 내용

- 하수슬러지의 연료화시, 건조상태에서 보조연료로 하는 것이 열량면에서는 유리한데 왜 일본에서는 탄화까지 하여 연료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건조상태는 열량면에서는 유리하나, 분진 및 악취발생 등의 취급면에서 불리하고 건조상태의 슬러지 중에는 아직도 부식가스의 원인물질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연소로의 수명단축등이 우려되므로, 탄화상태의 슬러지를 이용함.
- 혐기성 소화조에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등 타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 투입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극대화 할 경우, 소화조에 발생하는 소화여액에 의한 반류수내 질소 및 인등의 농도가 증가되어 수처리쪽에 악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 반류수의 질소 및 인 농도의 증가는 다소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일본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하수발생량이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처리장능력에는 다소 여유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반류수 농도가 증가하여도 이러한 처리

장의 여유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민간활용형 지구온난화 대책 하수도사업에서 CO2 삭감효과가 일정이상 될 경우, 관련건설비에 대한 약 1/3을 간접보조하고 있다는데, 간접보조의 이유는 무엇인가 ?

⇒ 현행법상 국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할 수 있으나, 민간기업에게 직접보조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간접보조하고 있음.

- LOTU프로젝트란?

⇒ 2005년 실시하여 올해 3월 완료하였으며 7개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슬러지에 관한 처리, 슬러지에서 인의회수 등의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사점

- 일본하수도 정책은 처리 및 처분 단계에서 재활용 단계를 거쳐 자원화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음. 즉 지구온난화/에너지 고갈현상 등 국가적인 현안문제와 결합시켜, 하수도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것은, 최근의 국정방향인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고, 향후에는 국내의 하수도 정책도 일본과 유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 일본의 하수도 에너지 자원화 및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여 국내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④ 주제 : 합류식하수도의 개선에 의한 수계리스크의 저감

○ 발표자 : 유역하수도계획조정관 이노우에 시게하루

○ 발표내용 요약

- 합류식하수도 설치현황 및 월류현황

· 기초자치단체의 약 10%, 처리구역면적의 약 20%, 하수처리인구의 약 30%가 합류식 하수도

· 우천시 빗물과 혼합된 하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미처리유출

· 동경도의 우수토구 약 800개소에서 연간 약 30회 월류

· 오오사카시 도톤보리천의 우수토구 약 28개소에서 연간 85회의 강우중 70회 월류

· 합류식하수도의 수질오염 영향

· 강우후에도 일정기간 방류수역의 대장균균수가 증가(동경 오다이바 해안 등)

· 전국 약 3000개소의 우수토구중 하류에 친수 및 상수원수이용장소가 약 600개소 존재

- 하수도법 시행령개정에 의한 개선 의무화

· 합류식 하수도개선의 중요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10년간 대책을 완료예정

· 개선목표 : 유출오염부하량 삭감, 미처리방류횟수 50%삭감, 협잡물 삭감

· 정비목표 : 합류식하수도 개선율 17%(2004)→약70%

(2013)

- 개선대책

· 하드웨어적 대책

· 침투시설(저류탱크, 트랜치, 투수성포장등)의 정비

·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도로 전환

· 우수저장시설(우수체류지 및 대심도 우수 저류지등)의 설치

- 소프트웨어적 대책
 - . 방수수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미처리 방류상황 등 정보제공
 - . 가정에서의 식용기름등의 유출억제 홍보 및 장치보급
- 기술개발 대책
 - . 2002-2004년 합류식하수도 개선대책 관련 기술개발 (SPIRIT21)실시
 - . 4개분야(협잡물제거기술, SS 및 BOD제거기술, 소독기술, 수질계측기술) 24개 기술을 실용화 성공

○ 질의응답 내용

- 합류식하수도의 개선대책 20년 후의 장기목표를 오염리스크의 해소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 ⇒ 오염리스크의 해소란 여러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단순히 기존의 수질항목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환경호르몬 문제 등 방류수역의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이다. 다만 현재는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은 차후 추진할 예정이다.
- 합류식하수도의 긴급개선대책 수립시, 현재 합류식 하수도의 수질 관리상태를 A, B, C, D의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각각의 달성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
 - ⇒ 단기계획에서 심각한 A, B단계의 개선목표는 60%, C, D단계는 40%로 정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평균 25%로, 지자체의 재정부족 및 사업추진의지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속도가 느리다.

○ 시사점

-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합류식하수도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2004년 시행령개정을 통해 합류식하수도의 유출부하량을 분류식하수도 정도로 억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도시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음.
- 국내는 하수처리장내 유입된 오염원제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향후 하수도 보급률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된 이후에는 도시비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미 이에대한 법적 제도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제도도입에 앞서 일본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도입성과에 대한 검정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III. 현지사찰 자료

참고 : 미나토 미라이 21



1. 계획 개요

- 개발면적 : 186ha
- 계획인구
 - 취업인구 : 19만명
 - 거주인구 : 1만명 (3,000가구)
- 토지이용 (186ha)
- 개발기간 : 1983~2000
- 총사업비 : 약 2조엔

2. 사업개요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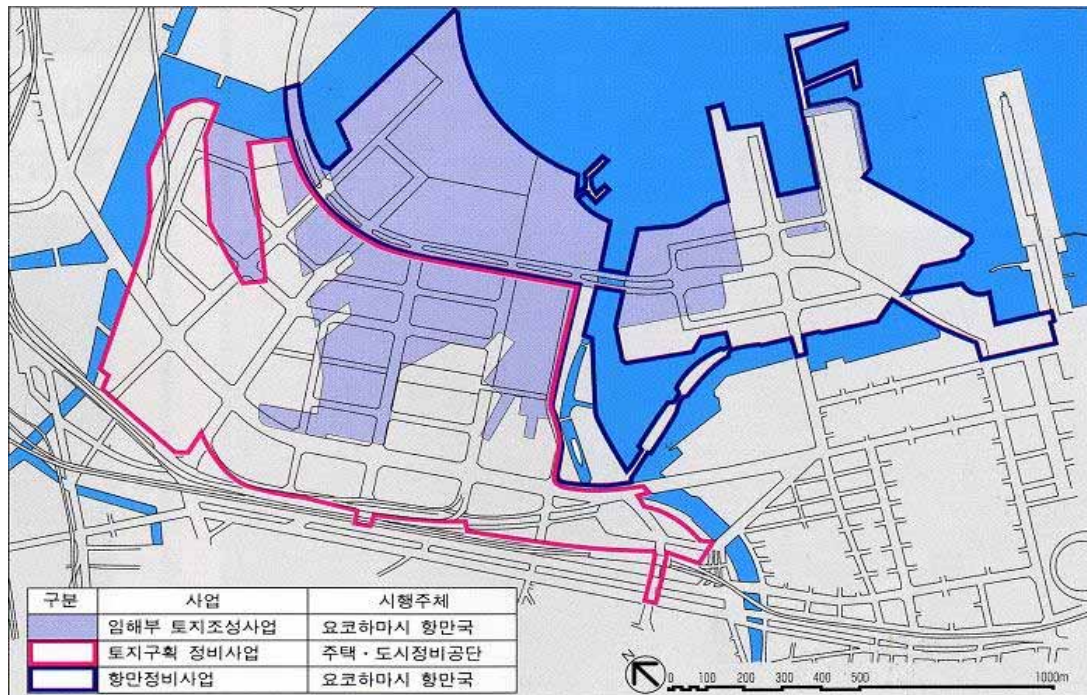


- 24시간 활기 있는 국제문화도시 조성
- 21세기의 정보도시 조성
- 물과 역사적인 인간 환경도시 조성

○ 사업주체 및 역할

- 임해부 토지조성사업(매립사업)
 - 중앙지구 : 매립예정면적 60.2ha중, 1992년 4월까지 일부 구역을제외하고 완료
 - 신코지구 : 부두 서쪽의 이치몬지 지구 전면해역, 7.3ha에 대해서는 1995년 4월 준공 또한 돌제간 1.2ha에 대해서는 1998년 2월에 준공
 - 구(舊)다카시마 야드 지구 : 용품고 풀 5.5ha에 대해서는 1996년11월에 준공
 - 사업개시 : 1983년도
 - 사업주체 : 요코하마시, 중앙정부
- 토지구획 정리사업
 - 구(舊)다카시마 야드지구를 제외하고 거의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등 기반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쿠라기초 역전광장, 이초도리, 게야키도리, 사쿠라도리, 산책길(그랑모울)교 등의 정비가 거의 완료
 - 시행기간 : 1983. 11.~2003년 말까지(청산기간 5년을 포함)
 - 사업총면적 : 96.2ha
 - 사업주체 : 주택·도시정비공단
- 항만정비사업
 - 니혼마루 기념공원의 정비를 완료한 후, 임항공원, 퍼시픽 요코하마 프라자, 내무정박시설 등 정비추진과, 중앙지구에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신코지구는 현재 빨간벽돌공원, 신코공원 등 녹지정비, 임항간선도로 등 도로정비공사가 추진 중임

- 사업개시 : 1983년도
- 사업주체 : 요코하마시, 중앙정부



1983년



1998년 3월



3. 개발배경 및 목적

- 1859년 개항을 시작한 요코하마시는 지리적으로 도쿄 중심부에서에서 30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직장 및 상업 활동이 도쿄로 집중되어 있어 밤에만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 이에 요코하마시는 “유메하마 2010 플랜”을 발표하여 상업·업무의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요코하마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도시생활에 있어서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역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나토 미라이21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 요코하마의 자립성 강화

- 요코하마의 도심부의 양분(간나이 · 이세자키조지구와 요코하마 역 주변지구)되어 있어 미나토 미라이21지구를 통한 부도심의 일체화를 위해 본사 기능, 쇼핑문화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취업의 기회제공 등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확립하여 요코하마시의 자립성을 강화

○ 항만기능의 질적인 전환

- 해변에 임항공원이나 나홍마루 기념공원 등 공원 · 녹지정비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해변공간을 조성하고 국제교류기능이나 항만의 중추관리기능을 집적하여 항만기능 질적 전환

○ 수도권의 업무기능 분담

-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여 도쿄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분담하는 최대의 위성도시로서 업무 · 상업 · 국제 교류 등 기능의 집적 · 확대를 도모

4. 개발특징

□ 지역조성 기본협정 체결

- 1988년 미나토 미라이 21지구의 지권자(地勸者) 및 (주)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21 과의 사이에 「미나토 미라이21 지역조성 기본협정」 체결
- 이 협정은 지권자(地勸者)간에서 지역조성에 관한 기준을 자주적으로 정하여 그 기본적인 개념을 공유함으로서 조화를 이룬 지역 정비를 추진해 가는 것이 목적임

- 이 협정에는 지역조성의 주제나 토지이용 이미지와 함께 ‘물과 녹지’, ‘스카이라인 · 거리모습 · 조망’, ‘액티비티 플로어’, ‘색조 · 광고물’ 등 지역조성의 기본적인 요소의 기본개념이 제시됨
- 건축물에 관해서는 부지의 규모, 높이, 보행자 연결망, 외벽 후퇴 등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고, 나아가서 고도정보화나 리사이클 사회에 대한 대응, 도시방재 및 주변 시가지에 대한 배려 등 도시관리에 관한 지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시
- 이 협정의 운영은 협정체결자가 구성하는 「미나토 미라이21 지역조성 협의회」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며, 협의회는 사무국은 (주)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21내에 설치되어 있음

☐ 중앙지구 지구계획

- 「지역조성 기본협정」에 의거한 자주적인 기준에 의한 지역조성을 법제도적으로도 확고한 것으로 하기 위해 1993년 3월 “미나토 미라이21 중앙지구 지구계획”을 결정
- 지구계획이란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물의 건축 등을 그 지구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구에 알맞는 지역조성을 실현해 가려는 제도

☐ 전파장애 대책

- “지역조성 기본협정”으로 정한 “주변 시가지에 대한 배려”를 구체화하기 위해 고층빌딩 건축으로 인한 전파장애 대책으로서 미나토 미라이21 지구 및 그 주변지구에서 CATV에 의한 텔레비전, 라디오의 재송신 서비스를 실시



미라토 미라이 21 구역도

- 1 : 요코하마 해상 방재 기지
- 2 : 빨강 벽돌 창고 / 빨강 벽돌 카프
- 3 : 내항 여객선 터미널
- 4 : 심미나토 파크
- 5 : 국제협력 사업단 요코하마 국제센터
- 6 : 요코하마 워드포타즈
- 7 : 요코하마 국제 선원센타나비오스 요코하마
- 8 : 요코하마코스모워드
- 9 : JAC 카트 렉 요코하마 (자동차 전시장)
- 10 : 운하파크
- 11 : 파시피코 요코하마
- 12 : 임항파크
- 13 : 닛폰마루 공동묘지
- 14 : 퀸즈스퀘어 요코하마
- 15 : 요코하마 경계표지 타워
- 16 : 26가구 개발(건설중)
- 17 : 요코하마 사쿠라기 우체국
- 18 : 27가구 개발
- 19 : 28가구 개발
- 20 : 다이닝 코트 28 (음식점거리)
- 21 : 요코하마 은행 본점 빌딩
- 22 : 일본석유 요코하마 빌딩
- 23 : 크린센터
- 24 : DHC 센터 플랜트
- 25 : 패션 하는 병원
- 26 : 토베 경찰서 미나토미라이 파출소
- 27 : 미나토미라이 32반다테 (음식점거리)
- 28 : 33가구 개발
- 29 : 관광버스 터미널 33 반다테
- 30 : 그란모르 공원
- 31 : 요코하마 미술관
- 32 : 미쓰비시 중공 요코하마 빌딩
- 33 : 요코하마 홈 컬렉션
- 34 : 닛산 카 팰리스 미나토미라이 21
- 35 : 토요타 죠이 파크 미나토미라이 21
- 36 : 39 가구 개발
- 37 : 요코하마 미디어 타워
- 38 : 요코하마 잭 몰
- 39 : 도시기반 정비 공단 사무소
- 40 : 요코하마 신도시 빌딩
- 41 : 스카이 빌딩
- 42 : 미나토미라이 21 종합안내소
- 43 : 미나토 보고 라이프 빌리고씨 다리
- 44 : 기차도 (프로메나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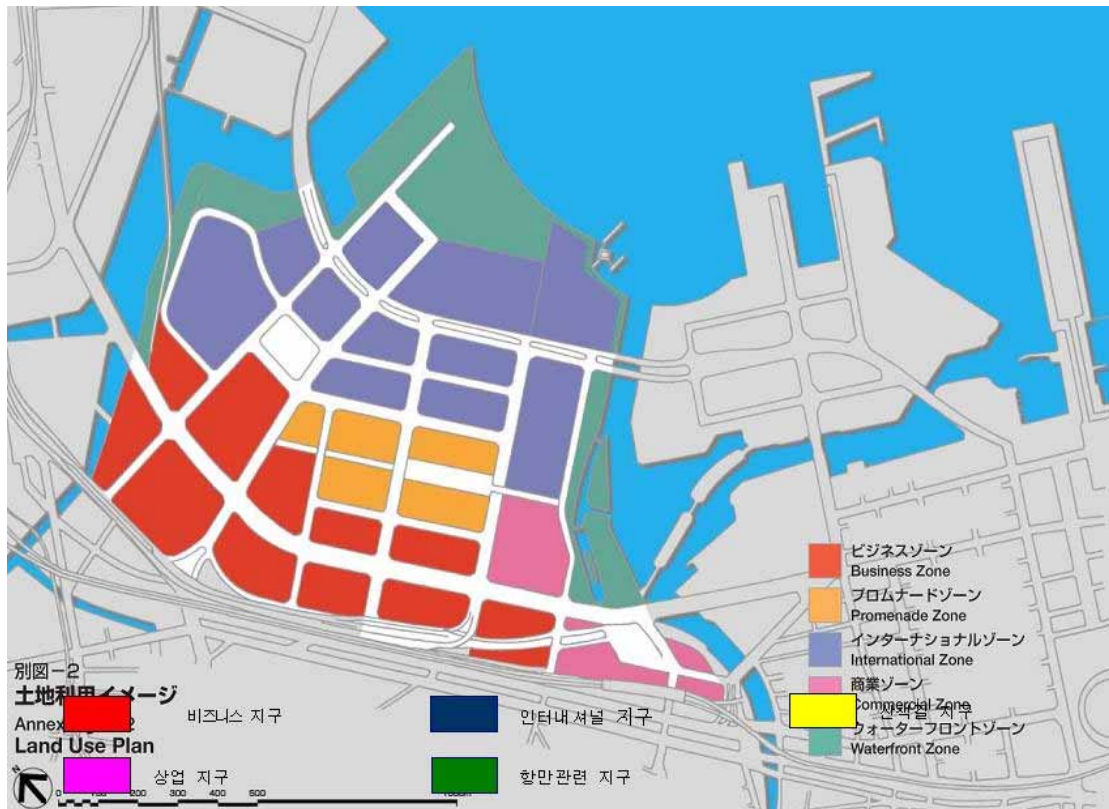
4. 부문별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

- 미나토 미라이21 지구의 토지이용은 택지 87ha, 도로 및 철도용지 42ha, 공원 녹지 등이 46ha, 부두용지가 11ha로 총 186ha 임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ha)	비율(%)	비 고
합 계	186	100.0	
택지(업무, 상업, 주택 등)	87	46.8	
도로·철도용지	42	22.6	
공원·녹지 등	46	24.7	
부두용지	11	5.9	



□ 입체화 및 역세권 개발

- 보행자 네트워크와 지하철 미나토 미라이선의 교차부에 퀸즈스퀘어 조성(업무, 호텔, 백화점, 클래식 음악홀 등 복합 용도)
- JR선 사쿠라기쵸역과 보행자데크를 이용하여 퀸즈스퀘어로 접근
-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내륙에서 바다로 건물높이가
낮아지도록 설계



주요보행동선은 폭원 8m
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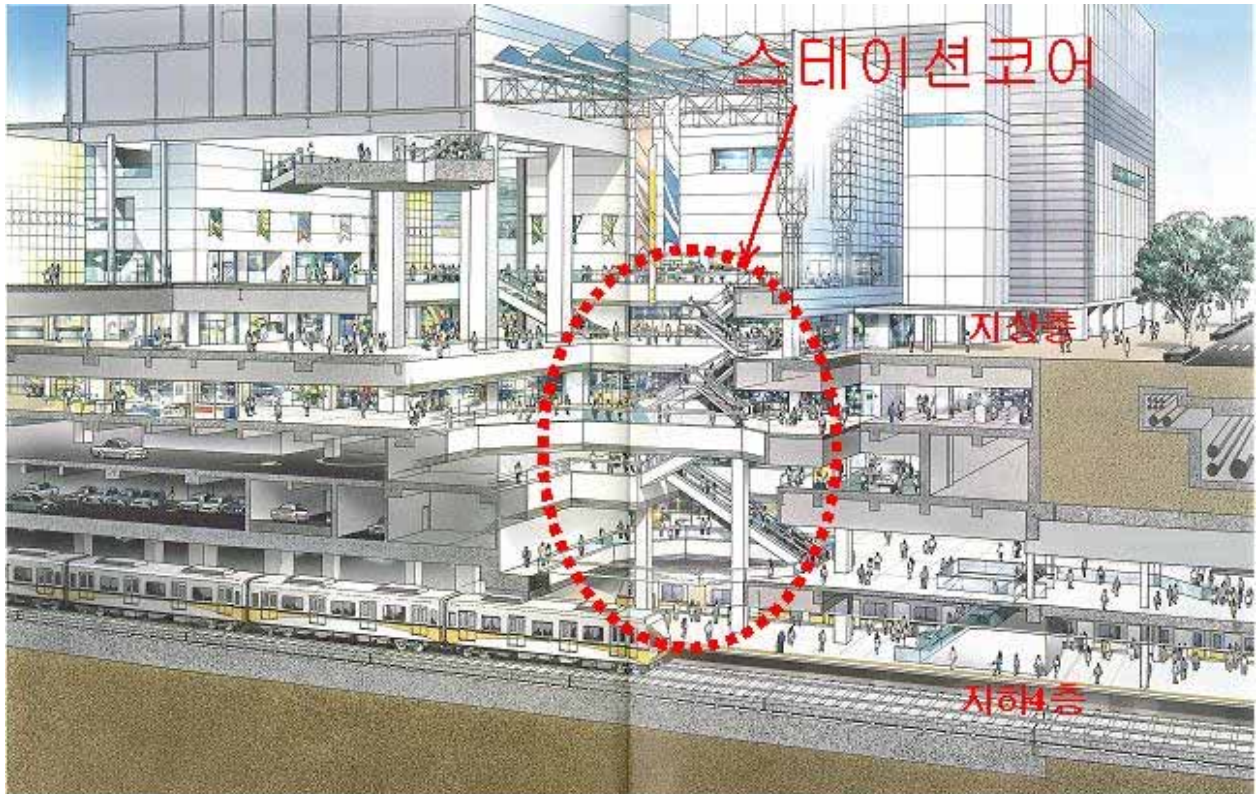


건물 상층부
보행데크



퀸즈스퀘어 내부의
상점가

- 옥내 쇼핑몰과 지하철역 교차부에 대규모 Void공간(스테이션코어)를 조성하고, 지하 4층(지하철역)까지 자연채광 될 수 있도록 설계



퀸즈스퀘어의 스테이션 코어 단면도



스테이션코어의 Void공간



직행 엘리베이터(적색표시
시각화)

□ 건축 및 도시경관

○ 건축개요

- 퍼시픽 요코하마(요코하마 국제평화회의장)
- 회의센터, 전시홀, 호텔 등과 더불어 국제교류거점인 “퍼시픽 요코하마”를 형성하며 미나토 미라이 21에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제교류가 전개되고 있음

- 법인 요코하마 관광컨벤션 뷰로
 - 관광컨벤션도시 요코하마의 조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요코하마 컨벤션 뷰로와 (사)요코하마 국제관광협회를 통합시켜 (재)요코하마 관광 컨벤션 뷰로를 설립
 - 관광객 유치 및 컨벤션 유치·개최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컨벤션 관련산업의 진흥을 도모



관광컨벤션 뷰로

- 요코하마 국제협력센터
 - 국제열대목재기관(ITT0),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 일본 사무소,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관(FAO) 일본사무소, CITYNET(시티네트)등 유치

-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는 민간 대규모 시설로, 대규모의 사무실, 호텔, 상가와 전망대, 문화시설 등 다채로운 기능을 내포한 일본 최대의 복합시설
 - 사업기간 : 1990. 3 ~ 1993. 7.
 - 부지면적 : 약 38,000m²
 - 연 면 적 : 약 392,000m²
 - 사업주체 : 미츠비시 지소 (주)
 - 건물높이 : 지상 70층, 지하3층(296m)
 - 건물용도 : 1~48층 사무실, 49~70층 호텔(603실), 69층 전망대,쇼핑몰, 다목적 홀 등
 - 특이사항 : 부지내의 구요코하마 도크 제2호 도크를 건물과 일체적으로 복원하여 행사용 광장으로 활용(중요



랜드마크 타워

문화재)

- 요코하마은행 본점

- 업무의 다양화에 대응한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홀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밀착
- 사업기간 : 1990. 12. ~ 1993. 9.
- 부지면적 : 약 8,000m²
- 연 면 적 : 약 86,000m²
- 사업주체 : (주)요코하마 은행
- 건물높이 : 지상28층, 지하3층(152.5m)
- 건물용도 : 업무,펜트하우스, 다목적 홀 등



요코하마은행 본점

- 게이유 병원(32가구)

-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해외각국의 외국인에게도 이용하기 편하며 쾌적한 의료환경을 갖춘 종합병원
- 공사기간 : 1993. 2. ~ 1996. 1.
- 부지면적 : 약 8,000m²
- 연 면 적 : 약 34,500m²
- 건물개요 : 지상13층, 지하3층(59.8m)
- 병 상 수 : 351
- 진료과수 : 19
- 사업주체 : 법인 가나가와 게이유회



게이유 병원

- 쿤즈 스퀘어 요코하마(24가구 개발)

- 고도의 도시기능을 집적한 선도적인 모텔가구(街區)로서 업무, 사업, 호텔 등과 그 밖에 세계수준을 만족하는 클래식 음악홀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

- 공사기간 : 1994. 2. ~ 1997. 7.
- 부지면적 : 약 44,000m²
- 연 면 적 : 약 500,000m²
- 건물개요 : A지상36층(172m), B지상28층(138m), C지상21층(10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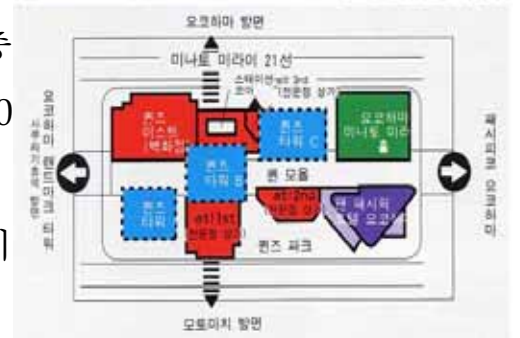
팬퍼시픽 호텔 요코하마 지상25층(105m, 485실), 요코하마MM홀(2,020석, 440석), 쿨몰, 주차장 (1,700대) 등

- 사업주체 : T·R·Y90 사업자 조합, 미츠비시지소(주), 주택·도시정비공단

- 소 유 자 : T·R·Y90 사업자 조합, 미츠비시지소(주), 닛키(주), 요코하마시

- 미츠비시중공업 요코하마 빌딩

- 미츠비시중공업의 종합적 기술력을 살린 인텔리전트빌딩이며, 빌딩 저층부에는 에너지나 환경등을 주제로 한 전시시설인 “미츠비시 미나토 미라이 기술관”이 병설



퀸즈스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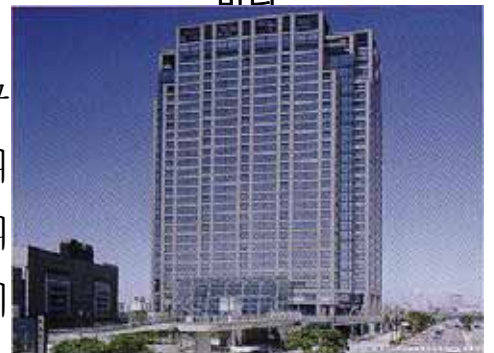


미츠비시중공업 요코하마

빌딩

- 닛세키 요코하마 빌딩

- 사쿠라기초역에서 미나토 미라이21 지구로 들어가는 현관에 위치하는 비즈니스의 거점이며, 현대의 비즈니스공간에 요청되는 기능성, 쾌적성, 안전성을 높은 차원에서 융합시킨 인텔리전트 빌딩



닛세키 요코하마 빌딩

- 요코하마 신도시빌딩 · 스카이빌딩

- 요코하마역으로부터 개발기점이 되는 선도적 시설로서 다양한 요망에 부응하는 “복합다목적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



요코하마 신도시빌딩·스카이빌딩

□ 공원·녹지 조경

- 철도역사에서 수변까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떠나 일체화된 보행통로 조성



보행자를 위한 무빙워크



역세권 Area



건물내의 공공용지(보행공간)



건물내의 지하철역사 통로

- 과거의 있었던 장소의 일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림
 - 미쓰비시 중공업 창엽의 역사가 있는 도크 일부를 존치 역사성과 볼거리 제공
 - “해변의 빨간 벽돌” 이란 이름으로 친숙한 빨간 벽돌창고의 보존·활용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관을 배려한 녹지로 정비
 - 벽돌창고지역 옆 철길을 살려서 보행로로 활용



미쓰비시 창업의 역사를 가진
도크



빨간벽돌창고 보존건물



철길을 이용한 보행로



빨간벽돌창고내 쇼핑상가

- 바닷가와 접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조망권 확보와 친수공간 역할
- 우리나라는 포장마차와 횡집이 조망권을 막아버림



수변공원



친수공원에 건축되는
레스토랑

-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홀
- 음향효과는 물론 사용자의 입장에서 최상급의 시설, 대공연장은 콘서트홀이며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

○ 니혼마루 기념공원

- 항구촌의 역사를 전해주는 시설로 공원내 “범선 니혼마루”나, 항구와 선박을 주제로 한 박물관인 “요코하마 마리타임 뮤지엄”이 있음



니혼마루 기념공원

참고 : 록본기 힐스



1. 사업개요

○ 위 치 : 도쿄도 미나토구 록본기 6초메

○ 규 모

- 개발면적 : 110,000m²

- 대상지면적 : 84,801.02m²

- 연 면 적 : 724,524.60m²

(업무:380.105m², 주거:149,96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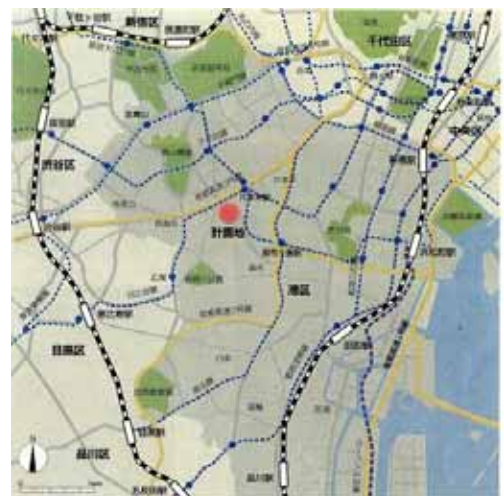
- 용 적 륜 : 630%(업무시설 840%)

○ 사업기간 : 1986. ~ 2003. 4

- 구상 14년 : 1986 ~ 2000

- 건설 3년 : 2000 ~ 2003. 4

○ 사업주체 : 민간사업



- 총사업비 : 2,700억엔 (지가포함 4,700억엔)
- 가 구 수 : 793가구 (소유자 : 약 400여명)
- 주차면수 : 2,670대
- 도입시설 : 사무실, 아파트, 호텔, 방송국,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세계의 최고 브랜드 입점)



특본기 개발전 주변 전경



과거 특본기 전경

2. 개발배경 및 목적

- 국제도시 도쿄에 문화도심을 창출하기 위해 TV 아사히 방송국 (약 30,000km²) 재건축과 연계하여 주변의 40년 이상된 주거불량 지역(550세대)을 포함하여 공공시설과 병행 개발
- 오피스, 주택, 호텔, 상업, 문화시설 등의 기능을 집적하고 기존 녹지를 보전하여 공원, 광장 등을 정리해 계획 부지면적의 과반을 오픈스페이스로 하는 문화 도심을 실현
-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공익시설을 정비해 광역교통거점,

지역의 방재거점으로서 주변지역에 파급효과 기대

- 지구의 입지와 특성을 살려 거주기능과 상업·업무·문화·정보의 각 기능을 높은 차원의 복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조성

3. 추진사항

- 1986 : 록본기 6초메 지구 「재개발 유도지구」 지정(도쿄도)
- 1987 : 「재개발 기본계획 책정조사(미나토구)
- 1988 : 마을 조성 간담회(5지구) 설립(조합)
- 1989 : 「시가지 재개발사업추진 기본계획 책정조사(미나토구)
마을 만들기 협의회 발족(조합)
- 1990 : 「사업추진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시설 기본계획 조사(미나토구)
록본기 6초메 도시재개발준비조합 설립(조합)
※ 시민대표자 회의, 의회 및 준비기구 활동을 통하여 재개발 실현을 위한 검토, 준비와 권리관계자와 합의 형성을 진행시킴
- 1991 :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회」 개최(미나토구)
- 1992 : 「시가지 재개발사업 추진 기본계획 책정조사(초년도)」
「재개발 지구계획의 개요 설명회」 개최, 「시가지 재개발사업 추진계획 책정조사(2년도)」, 「록본기 6초메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지구 계획」 도시계획 원안 공고·공람(미나토구)
시설계획안 6·6 plan 발표(조합)
- 1993 : 「시가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책정조사(3년도)」, (미나토구)
「록본기 6초메 지구 제1종시가지 개발사업」 도시계획안 공고·공람 (도쿄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개시, 환경영향평가서안 설명회 개최 (총10회)(조합)

- 1994 : 시설계획안 6·6 plan '94 발표, 동 견해서 설명회 개최
(총7회)(조합)
- 1995 : 도시계획 결정고시(재개발지구 계획, 제1종시가지 재개발
사업지)(도쿄도) 「환경영향평가서」 공시·공람(조합)
- 1997 : 시행지구와 가능구역의 공고(미나토구), 공공시설관리자 동의
(도쿄도·미나토구)
- 1998 : 록본기 6초메지구 시가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도쿄도)
록본기 6초메지구 재개발 조합 설립(조합)
권리변환 계획 열람(10.29-11.11), 권리변환 계획 인가신청
※ 권리전환계획의 책정과 새로운 합의 형성을 진행시킴
- 1999 : 권리변환계획인가(도쿄도)
- 2000. 4 : 공사착수
- 2000. 6 : 명칭을 록본기 힐스 결정
- 2003. 4 : 사업완료 및 조합해산

《추진과정》

- 1986년 도쿄도에서 아사히방송국일원을 '구도심재개발유도지구'로 지정후 아사히방송국 직원 374명이 지역주민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부동산버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대
- 사업자금은 모리부동산이 PF(Project Financing) 25년 상환 조건으로 마련
- 특히 현지주민들에게 토지면적의 1:1로 입주하게 하는 한편, 상가매각 때 우선권을 주는 등 혜택을 주어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였으며, 나머지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
- 또한 개발이익은 주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과 모리부동산이 나눠가졌으며, 기존 집 보다 넓고 좋은 데 살려는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것 외엔 별도 부담이 없었음

4. 개발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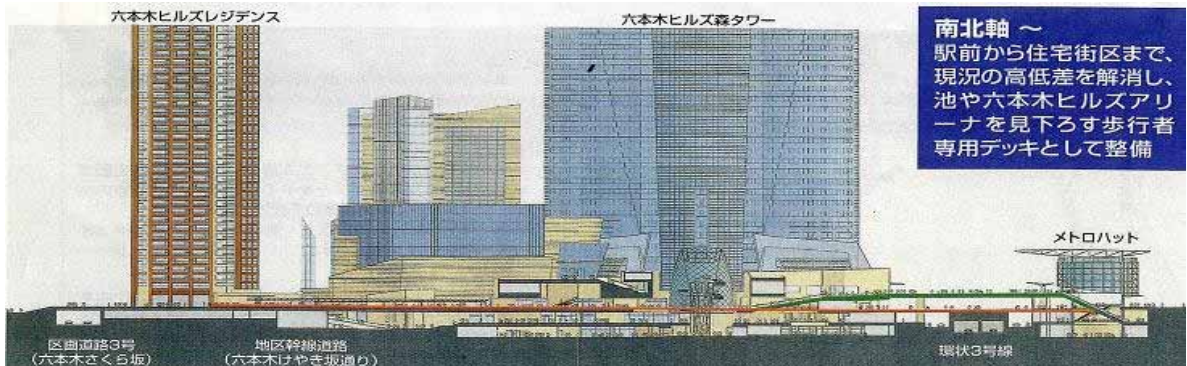
-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공간을 위해 주변에 약 6만 그루 나무 식재
- 건축부분에서 보차분리 실현, 중앙공원 등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 수도고속도로 3호선이 통과하며, 간선도로 순환3호선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도심 교통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
- 중앙에는 록본기힐스의 상징물인 지상54층 건물 모리타워를 배치하고 최상부에 「문화·도심」의 핵심시설인 모리미술관, 전망대 등 도입
- 또한 도쿄그랜드하얏트 호텔, 케야키자카, 콤플렉스, TV아사히 등을 배치한 중심상업·업무·문화·정보를 집적



5. 부문별 조사내용

□ 입체화 및 역세권 개발

○ 지형을 극복한 입체도시 구상



남북축 입체단면도

- ※ 남북축 : 지하철역에서 주택가구까지, 지형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연못과 록본기힐즈 아레나를 내려다보는 보행자 전용 데크로 정비



동서축 도로정비

- ※ 동서축(록본기 느티나무 언덕길) : 폭이 넓은 보도를 따라, 가로수의 녹음과 쇼핑을 즐기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



롯데기힐스 모형도



롯데기힐스 모형도



모리정원



롯데기힐스 아레나



언덕을 활용한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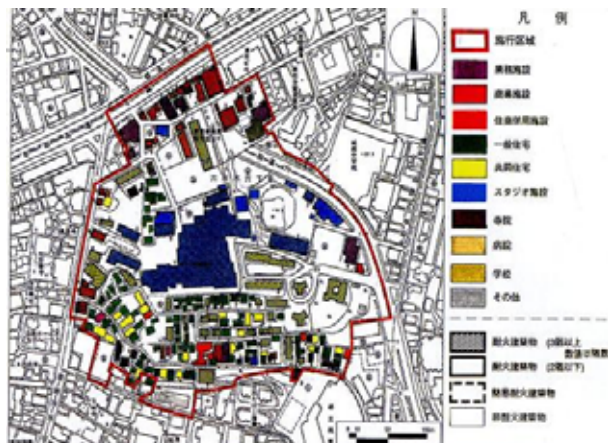
상업시설내의 보행공간

□ 건축 및 도시경관

- 건축물 용도 및 배치 : 초고층의 오피스동, 복합동, 호텔동, 극장동, 각동 저층부의 상업시설, 방송센터, 4개동의 주택동(초고층 2개동 포함), 지구간선도로, 녹지로 구성되어 있음.
- 초고층 오피스동의 상면적(기준층면적 $3,873\text{m}^2 \sim 4,648\text{m}^2$), 연면적($379,451\text{m}^2$)은 동경시내에서 최대규모
- A지구 : 지하철 도쿄메트로 히비야선과 직접 연결되어 롯데기힐스의 관

문역할

- B지구 : 호텔, 방송센타, 문화시설의 기능.
 - 모리타워의 최상층에는 전시실, 미술관(53F), 전망대(52F)와 록본기클럽, 아카데미힐스(40F~49F, 회의실, 회원제도서관, 교육시설 등)로 구성
 - 그랜드하얏트도쿄호텔에는 389개의 객실과 13개의 회의실 및 10개의 레스토랑과 Bar가 완비
 - 방송센타에는 TV아사히와 모리정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모리정원은 항상 일반에게 공개됨.
 - 상업시설은 약 230개 업종이 입점, 상업동과 건물의 저층부 및 도로변(명품점이 입지)에 배치되어 있음.
- C지구 : 43층 2개동을 합한 4개동의 주택이 배치
- D지구 : 록본기 게이트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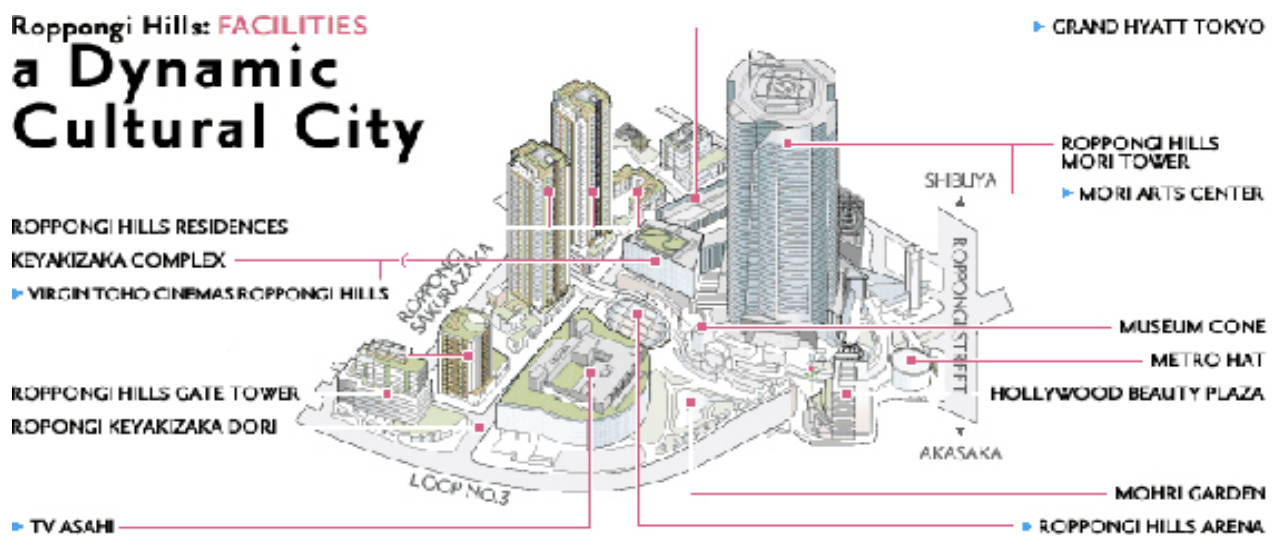
개발전의 건물배치 및 용도



지구계

《시설개요》

Roppongi Hills: **FACILITIES** a Dynamic Cultural City



○ 헐리웃 뷰티블라자

- 주 용 도 : 사무실, 학교, 소매점
- 연 면 적 : 24,526.00m²
- 건물층수 : 지상 12층, 지하 3층
- 건물높이 : 54.33m(최고점 59.33m)
- 건물구조 : 강구조, 강+철콘, 철콘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헐리웃 뷰티플라자

Irie Miyake Architects&Engineers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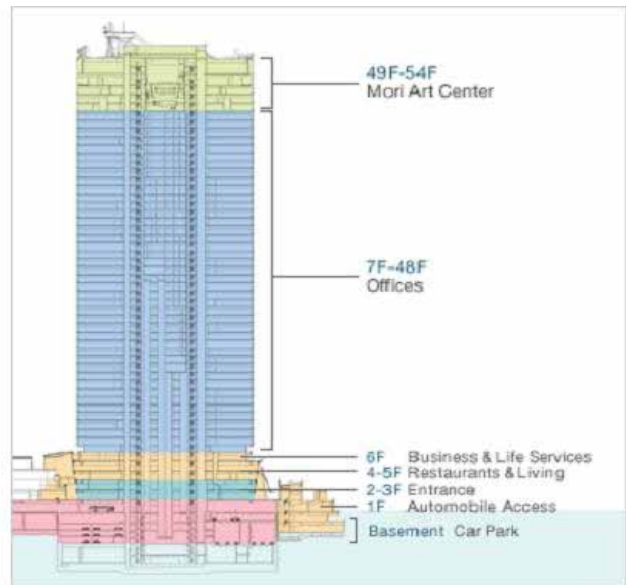
The Jerde Partnership International, Inc.

- 시 공 사 : Kajima Corporation
- 오피스빌딩(모리타워)
 - 주 용 도 : 사무실, 소매점, 박물관
 - 연 면 적 : 380,105.09m²
 - 건물층수 : 지상 54층, 지하 6층
 - 건물높이 : 238.05m(최고점 238.06m)
 - 건물구조 : 강구조, 강+철콘, 철콘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Mitsubishi Jisho Sekkei Inc

The Jerde Partnership International, Inc.

- 시 공 사 : Obayashi/Kajima Joint Venture



모리타워

- 동경 그랜드 하얏트 호텔
 - 주 용 도 : 호텔, 사무실
 - 연 면 적 : 69,072.24m²
 - 건물층수 : 지상 21층, 지하 2층
 - 건물높이 : 80.52m(최고점 80.52m)
 - 건물구조 : 강구조, 강+철콘, 철콘



그랜드 하얏트 호텔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Irie Miyake Architects & Engineers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The Jerde Partnership International, Inc

- 시 공 사 : Tasei Corporation

○ TOHO 극장

- 주 용 도 : 극장, 소매점
- 연 면 적 : 19,387.54m²
- 건물층수 : 지상 6층, 지하 2층
- 건물높이 : 46.99m(최고점 47.69m)
- 건물구조 : 강구조, 강+철콘, 철콘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토호극장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 시 공 사 : Fujita Corporation

○ TV 아사히

- 주 용 도 : TV방송국, 사무실, 소매점
- 연 면 적 : 73,700.43m²
- 건물층수 : 지상 8층, 지하 3층
- 건물높이 : 43.77m(최고점 44.99m)
- 건물구조 : 강구조, 강+철콘, 철콘
- 설 계 : Maki and Associates
- 시 공 사 : Takenaka Corporation



TV 아사히

○ 주거용빌딩 A

- 주 용 도 : 아파트, 소매점
- 연 면 적 : 123,420.98m²
- 건물층수 : 지상 6층, 지하 2층
- 건물높이 : 18.42m(최고점 22.44m)

- 건물구조 : 강구조, 강+철콘, 철콘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Ikken-HS Co., Ltd.
Conran & Partners
The Jerde Partnership International, Inc.
- 시 공 사 : Toda Corporation/Fujita Corporation Joint Venture

○ 주거용빌딩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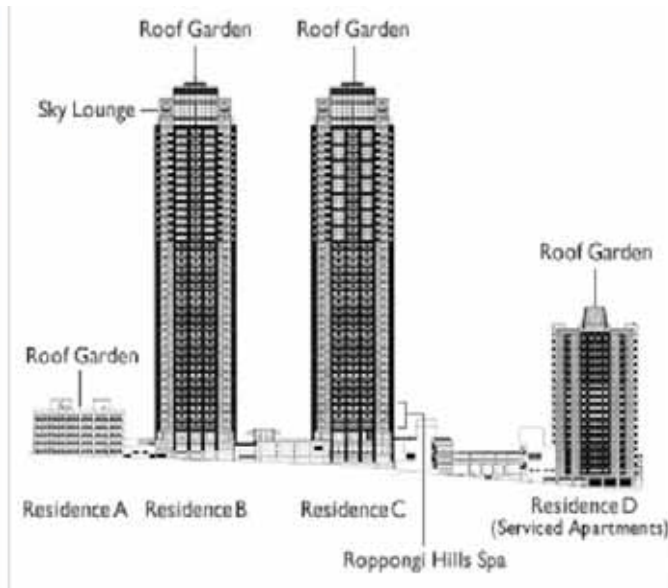
- 주 용 도 : 아파트, 소매점
- 연 면 적 : 123,420.98m²
- 건물층수 : 지상 43층, 지하 2층
- 건물높이 : 152.48m(최고점 159.18m)
- 건물구조 : 강구조, 강+철콘, 철콘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Nikken-HS Co., Ltd.
Conran & Partners
The Jerde Partnership International, Inc.

- 시 공 사 : Toda Corporation/Fujita Corporation Joint Venture

○ 주거용빌딩 C

- 주 용 도 : 아파트, 소매점
- 연 면 적 : 123,420.98m²
- 건물층수 : 지상 43층, 지하 2층
- 건물높이 : 152.48m(최고점 159.18m)
- 건물구조 : 강구조, 강+철콘, 철콘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Nikken-HS Co., Ltd.
Conran & Partners
The Jerde Partnership International, Inc.

- 시 공 사 : Shimizu/Seibu Kensetsu Joint Ventu



주거용빌딩

○ 주거용빌딩 D

- 주 용 도 : 아파트, 소매점
- 연 면 적 : 26,542.73m²
- 건물층수 : 지상 18m, 지하 2층
- 건물높이 : 62.70m(최고점 72.42m)
- 건물구조 : 강구조, 철콘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Nikken-HS Co., Ltd.
Conran & Partners
The Jerde Partnership International, Inc.
- 시 공 사 : Shimizu/Seibu Kensetsu Joint Venture

○ 업무용빌딩 B

- 주 용 도 : 사무실, 소매점
- 연 면 적 : 6,855.73m²
- 건물층수 : 지상 6m, 지하 1층
- 건물높이 : 26.19m(최고점 29.14m)
- 건물구조 : 철콘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Irie Miyake Architects & Engineers

- 시 공 사 : Kumagai Gumi Co., Ltd

○ 종교시설

- 주 용 도 : 불교사찰
- 연 면 적 : 514.80m²
- 건물층수 : 지상 2층, 지하 1층
- 건물높이 : 7.58m(최고점 12.6m)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Irie Miyake Architects & Engineers

- 시 공 사 : Toda Corporation

○ 창고

- 주 용 도 : 창고시설
- 연 면 적 : 200.41m²
- 건물층수 : 지상 1층
- 건물높이 : 3.89m(최고점 3.89m)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Nikken-HS Co., Ltd.
- 시 공 사 : Shimizu/Seibu Kensetsu Joint Venture

○ 공연장

- 주 용 도 : 공연장
- 연 면 적 : 200.65m²
- 건물층수 : 지상 2층, 지하 1층
- 건물높이 : 8.30m(최고점 8.30m)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설 계 : Mori Building Co., Ltd.

Nikken-HS Co., Ltd.

- 시 공 사 : Shimizu/Seibu Kensetsu Joint Venture

□ 도로 및 교통계획

○ 광역교통에 이바지함

- 록본기 도로와 순환3호선을 평면접속하는 측도를 정비.
- TV아사히도로와 순환3호선의 이모센사까(芋洗坂) 하부를 연결 지구 간선도로(록본기 느티나무 고갯길)를 정비

○ 보행자 공간의 정비

- 가로 현관입구가 되도록 중심광장을 정비해, 지하철 록본기역과 지하연결통로로서 접속
- 순환3호선 횡단데크(66프라자), 남북, 동서의 축으로서 보행자 동선을 정비해 보차분리를 실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에 의해 단차를 해소하여 안전한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
- 구 모리저택자리 연못, 녹지의 보전을 비롯하여, 공원·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정비



보행네트워크

○ 지하주차장 진출입 동선체계

- 간선도로 순환 3호선 진입부에서 테이퍼에 의한 측도를 이용하여 주차장 진출입
- 주차장 진입 측도가 지하가아닌 지상에 설치

○ 주차장내 접근로는 순환형태의 도로를 이용하여 각 주차장으로 접근이 가능

○ 중심부 보행광장 및 건물간 연결통로(데크)는 없으나,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보행시설(에스컬레이터)은 충분히 설치하여 보행자 이용은 편리



주차장 진출입로



주차장내 진출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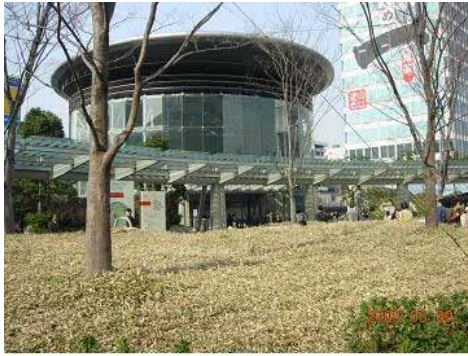
- 수도권고속도로 3호선이 통과하며, 간선도로 순환 3호선이 결절점으로 도심교통의 중요한 위치
- 순환 3호선은 교통혼잡으로 별도의 대책 필요
- 도교역, 시나가와역 등의 재개발지역과 록본기힐스간 연결도로형태
- 간선도로와 단지내 도로와의 접속형태
- 기타 국내 적용가능한 교통안전시설 모색



지구 간선도로



순환3호선



록본기역



수도고속도로

□ 공원·녹지 조경

- 도로 상부를 2층으로 복개하여 도로는 통과교통을 처리하고, 복개한 1층은 건물내로의 진출입과 주변을 잇는 교통을 처리하고, 2층은 역과 건물을 잇는 보행로와 광장, 녹지로 활용
- 역과 상가건물, 주거지로 연결되는 편리한 보행로(데크)설치
- 상가에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제공을 위한 이벤트장 설치와, 생물서식공간을 배려한 일정규모의 비오톱 설치



주거지와 연결된 보행로



전철역과 건물을 잇는 보행로

참고 : 미드랜드 스퀘어

건축개요

소재지:나고야시 나카무라구

오픈:2007년3월

사업주체 : 東和부동산(주), 토요타자동차(주), (주)마이니치신문사

설계,감리: (주)니켄설계

시공: 다케나카, 오바야시, 카지마, 시미즈 공동기업체

부지면적:약1만1,643m²

연면적:약19만3,450m²

나고야역앞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시재생특구로 인정된 빌딩으로, 용적률이 종래의 1,000% 에서 할증된 1,420%를 실현.

건물 높이 247m로, 중부지방에서 가장 높은 건물. (일본 전체에서는 5번째)

"미드랜드이외에도, 나고야역주변에는 재개발등에 의해 고층빌딩이 계속 완성되고 있다. <나고야 루센트타워(높이 180m)>, <모드학원 스파이럴타워즈(높이170m)>, <JR센트럴타워 (높이 245m)> 등, 높이 100m를 넘는 고층빌딩이 6개가 세워졌으며, 그 외에도 건축러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 : 오아시스 21

사업개요

사업주체:나고야시

건설주체:(재)나고야 도시정비공사, 사카에공원진흥(주)

부지면적 : 약2.0ha

건축면적 : 10,100m²

연면적 : 25,200m²

전체사업비 : 약160억엔

오픈 : 2002년10월

1. 사업의 목적과 경위

사카에공원지구는, 나고야시의 도심부 사카에에 위치하여, 지하가와 지하철역에 인접한 아이치현문화회관, NHK나고야방송회관, 구 사카에공원으로 이루어진 지구로, 아이치현문화회관과 NHK나고야방송회관의 노후화와 시설확충을 위한 재건축계획을 계기로 지구의 재정비계획이 검토되었다.

1987년4월, 양시설과 구 사카에공원 부지를 교환하여, 각각 <광장존>, <문화시설존>으로 재정비하는 구상이 나고야시, 아이치현, NHK간에 각서화되오, 사카에공원지구의 재정비가 시작되었다.

이 재정비계획에서는, (1)인접하는 히사야오도리공원과 사카에공원의 일체화, (2)도심의 활성화, (3)문화의 거점 만들기, (4)남북2km에 이르는 히사야오도리공원의 연속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이전, 에 중심을 두고 계획이 진행되었다.

1991년에 NHK나고야방송센터빌딩이, 1992년에 아이치예술문화센터가 오픈하고, 1994년에는 공원의 지하점포의 경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제3섹터, 사카에공원진흥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그 후, 버블붕괴에 의한 건축재정 속에서, (1)사업비와 유지관리비의 대폭삭감, (2)장래수요에 맞는 버스터미널의 규모축소, (3)이벤트개최가능한 지하광장의 확보, 의 3점을 포인트로 사업계획의 수정이 검토되어, 그 결과, 1997년에 설계, 시공, 점포유치를 포함한 <제안협의(사업공모)>가 실시되어, 지하에 대규모 광장공간을 확보하면서, 부지내부에 넓은 보이드와 심볼릭한 대지붕을 배치한 (주)오바야시구미의 제안이 당선되어, 1999년4월에 착공되었다.

2001년에는 사카에공원의 애칭을 공모하여, <오아시스21>이라고 이름지어졌다.

2. 사업의 방법

오아시스21은, 공원, 버스터미널, 점포, 지하보이드광장 등의 중층이용에 의한 복합시설로, 공원과 버스터미널 등의 주요부분은, 나고야 도시정비공사가 그 건설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를 대신하여 건설을 실시하고, 정비후에 시가 취득하고, 점포 및 지하광장은 제3섹터의 사카에공원진흥(주)이 건설하고, 그 안의 지하보이드광장은 NTT-A사업의 무이자융자의 활용에 의해, 완성후에는 나고야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시설	건설주체	관리주체
공원본체	나고야시 도시정비공사	나고야시(시가 취득)
버스터미널		
점포	사카에공원진흥(주)	사카에공원진흥(주)
지하보이드광장		나고야시(시가 취득)

3. 시설의 개요

오아시스21은, 연면적25,200㎡의 입체형공원으로, 지하1층에는 보이드광장과 그 주위를 둘러싸듯이 점포가 들어서있으며, 반지하에는

버스터미널이 배치되고, 지상에는 인공지반의 공원으로 되어있다.

이 시설에서 특징적인것은, <물의 우주선 지구호>라고 이름지어진 보이드상부의 대지붕이다. 대지붕의 표면은 유리로 만들어져, 그 위를 깊이10cm의 물로 되어진 수반이 되어있고, 그 둘레는 산책로가 되어있다. 태양빛이 물결치는 수면을 통과하여 지하광장에 신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지하보이드광장은, 약7,500m²의 면적을 갖는 대규모 지하시설로, 지하가, 지하철역등 주변시설과도 지하통로로 연결되며, 중심부의 큰 보이드에 의해, 수평, 수직방향으로 공간이 연결되어, 사람들의 다양한 회유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상공원은, 히사야오도리측에서 아이치예술문화센터와 NHK나고야방송센터빌딩에 이르는 데크를 향한 전면이 완만한 경사면잔디광장으로, 도심부에 귀중한 녹음 광장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원 아래의 반지하부에는, 대합공간과 승강공간이 분리된 홈도어방식의 쾌적한 버스터미널이 설치되어 있다.

4. 이후의 과제

오아시스21의 정비에는, 종래의 공원정비와는 다르게, 단순히 지상의 오픈공간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도심의 한정된 토지의 고도이용의 관점에서, 공원을 복층적으로 고려한 지하이용에 의해, 점포를 유치하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공간활용술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로써 녹음과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공원에는, 시설내용과 이용상의 규제가 있어, 지하공간으로서도 방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앞으로 입체형공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바탕으로 지하공간의 이용환경을 어떻게 정비해나갈 것인가가 과제라고 생각되어진다.

참고 : 나디아 파크

Nagoya(나고야), Design(e디자인), Youth(젊음), Amusement(즐거움), Park(사람이 모이는 즐거운 장소) 를 조합한 명칭.

<앞으로의 나고야의 도시생활을 디자인하는 문화, 산업, 어뮤즈먼트 정보, 교류의 장>을 개발테마로, 근로학생의 학습의 장이었던 나고야시립중앙고등학교의 적지를 재개발.

1. 개발기본구상

나고야시의 장기종합계획인, 나고야시 신기본계획(1988-2000년)안에, 시립중앙고교 이전후의 토지이용, 재개발구상이 다음과 같이 세워져있었다. ①<나고야대도시권의 상업, 업무, 정보 등의 중심지로서 고차원도시기능의 집적과 토지의 고도이용을 추구한다>, ②<매력있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오락 등의 시설 배치를 계획적으로 유도하여, 국제적인 도시문화의 거점으로서 매력과 활기있는 다양한 교류공간의 형성을 추구한다>, ③마치즈쿠리의 수범으로써, <공유지 신탁제도의 활용, 사업공모방식의 적용 등, 민간이 갖는 창의와 활력을 도입한 마치즈쿠리방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사업계획제안경기

나고야시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하기 위하여, 나디아파크 비즈니스센터 빌딩측에서 처음으로 신탁제도를 채용하여, 제안경기를 실시. 그 결과, 미즈비시UFJ신탁은행주식회사의 안을 채용.

3. 공유지 신탁제도(토지신탁)

토지소유자인 나고야시는, 미즈비시UFJ신탁은행주식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였다. 미즈비시 UFJ 신탁은행주식회사는 회사의 조달자금에 의해 사업의 기획, 건물의 설계 및 건설, 테넌트유치에서부터 운영관리까지를 실시하고, 신탁기간(30년)의 종료후에 나고야시에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는 것이다. 임대에 의한 수입은, 제경비,

차입변제금, 적립금을 제하고 나고야시에 배당된다.

4. 건축계획

실시설계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특정가구의 지정을 받아, 유효공지(옥외유효공지, 옥외데크, 아트리움), 공용주차장(B2F-B4F의 자주식주차장) 및 문화, 교육, 복지 등에 기여하는 시설(전시실, 홀 등)의 설치 및 미변상황에의 배려에 의해, 기준용적률 600%가 지정용적률 900%로 완화되었다.

5. 환경영향평가

나고야시 환경영향평가지도요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 주변지구에서의 풍대책으로써 디자인센터빌딩벽면의 형상을 변경, 전파장해대책으로써 비즈니스센터빌딩 별면의 일부를 곡면화 하는 등, 주변지구에서의 환경대책을 강화하였다.

참고 : 히가시 찻집 거리

□ 위치 및 연혁

- 찻집이란 일본의 전통적인 예능을 즐기며 술과 식사를 즐기는 곳으로서, 에도시대 때는 기생들의 춤과 악기 연주를 즐기는 장소
- 가나자와의 찻집은 원래 도시 중심부에 흩어져 있었지만, 1820년에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네 개 지구로 집결,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바로 히가시 찻집 거리
- 에도시대 때 일반적으로 금지되던 상황 속에서 찻집 건물에는 2층이 인정
 - 1층 바깥쪽의 기무스코(木蟲籠)라는 아름다운 격자무늬 장식과 2층에 있는 접객용 방이 찻집 건물의 특징
 - 한 걸음 안쪽으로 들어서면 미로와 같은 복잡한 골목이 이어져 있으며, 교토의 기온과 이곳만이 역사적 거리의 찻집 거리로서 국가 문화재로 선정
- 게다가 조망이 아름다운 아사노가와 강변까지는 도보로

3분. 히가시 찻집 거리와 아사노가와 강 일대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접해 보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구역

http://www.denken.gr.jp/archives/Hozontiku/kanazawa_index.html

참고 : 겐로쿠엔 공원

"| 시대 : 에도시대 후기

"| 위치 : 이시가와(石川)현가나자와시(金'■s)
겐로쿠초"i■六'¥"j1-1

"| 지정면적 : 10만740m²

일본3대정원의 하나로 불리우는 이 정원은, "@6개의 뛰어난 경관, <육승>을 겸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

1. 카가(加賀)의 문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문화유산

이 정원은,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으로, 카가의 역대방주(방주:지배자와 같은 위치)에 의해,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해 왔다(1676년경부터 조성). 가나자와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사계절 각각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많은 시민과 세계각국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2. 광대한 토지에, 연못, 축산, 정자를 배치한, 회유식 정원

겐로쿠엔은, <회유식>이라는 요소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시대의 정원수법도 구사하여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정원이다. 회유식이라는것은, 절이나 서원에 앉아서 감상하는 정원이

아니라, 토지의 넓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원의 안에 큰 연못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정자나 차실을 점재시켜, 그것들에 들어가면서 전체를 유람할 수 있는 정원이다. 몇개의 연못과, 그것을 연결하는 곡수(曲水)가 있고, 연못을 판 흙으로 산을 쌓고, 다채로운 수목을 식재하고 있으므로, <축산 임천 회유식정원>이라고도 불리온다.

3. 역대방주가 안고있던 번영의 바람을 투영

몇대에 걸친 카가방주에 의해, 오랜년월에 거쳐 형태가 만들어진 겐로쿠엔이지만, 정원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사상은 일관되어 있었다.

그 사상은, 신선사상. 큰 연못을 만들어 큰바다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불노불사의 신선인이 산다고 설정한 섬을 배치한다. 방주들은, 장수와 영겁의 번영을 정원에 투영한 것이다. 최초의 조성자, 5대방주 츠나노리는, -H-■i호우라이"j"E繪■i호조우"j"E瀛州"i에이슈우"j의 3신선도(島)를 만들었다. 또한, 13대방주 나리야스도, 霞'-r(카스미가이케)에-H-■■(호라이지마)를 조성하였다.

-t治"i메이지"j7년(1874년)에, 겐로쿠엔은 전면적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었고,

'■正"i다이쇼"j11년(1922년)에 국가의 명승지로 지정되었다. 1985년에는 명승에서 특별명승으로 격상되어, 정원의 국보라고도 불리워지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다.

1994년부터 <'*J'r(나가타니이케)주변정비사업>이 시작되어, 2000년에 준공되었다. 새로운 정원에는, 메이지초기에 철거된 <時雨'■(시구레테이)>와 <舟"V御'■(후나노오친)>이 재현되는 등, 겐로쿠엔은 한층더 넓은 곳이 되었다.

■六園"i겐로쿠엔)

일본 3대정원의 하나. 에도시대에 조성됨.

(홈페이지 참고)

<http://www.pref.ishikawa.jp/siro-niwa/kenrokuen/e/index.html>

참고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소재지: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

설계 : 건축- SANAA , 구조-佐々木"X"朗

(건축설계자, 구조설계자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 작가)

시공 : 다케나카, 하자마 외

준공 : 2004년9월

비고 : 2005년도 굿디자인상 금상, 일본건축학회상 작품상(2006년)

건축가 SANAA(세지마, 니시자와 공동)가 설계한 이 미술관은, 공원과 같이 열린 부지의 중앙에 위치한다. 내측에 있는 전시실 등의 유료존, 외측에 있는 시민 갤러리, 아트 라이브러리 등의 무료존으로 이루어진다. 외형은 직경 113m의 원형으로, 앞뒤의 구별이 없고, 4개의 출입구가 있다. 둘레 전체가 유리로 되어, 저항감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건축프로그램과 플랜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시의 담당자팀, 학예원팀, 설계자팀 이라는 다른 입장의 삼자가 함께 만들어갔다. 처음에는, 가나자와의 전통공예를 발표하는 장소의 요망에 의해서 건설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난해한 느낌의 현대미술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의문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체험형의 작품이 충실한 80년대이후의 현대미술로 대상을 집중했다. <알기쉬움>이 아닌, <접근하기 쉬운>전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술관이 위치한 부지는, 현청이 이전하고, 교외에 대형상업시설과 시네컴플렉스등이 생기게 되어 중심시가지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줄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심력 있는 건축의 존재에 의해, 새로운 사람의 흐름이 생겨났다.

미술관은, 2004년 개관 1년이 되기전에 입관자수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2005년에는 <히트상품순위>에도 선정되어, 지역으로써의

활력 획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함이 끊기지않는 큰 이유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학교이적지였던 부지는, 관광명소인 ■六園의 서쪽에 인접하고, 시청을 끼고 바로 변화가로 이어진다. 글자그대로 중심부의 <지나가는 곳>, <잠시 들르는 곳>이 되는 새로운 장소가 생긴것이다.

21세기미술관의 성공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타나카시장은, <문화예술창조도시로써는, 구겐하임미술관을 핵으로하는 스페인의 빌바오가 유명하다. 가나자와시의 예는, 일본에서의 선구적인 도시전략으로써, 요코하마시가 추구하는 것과 그 방향을 같이한다. 도시로 열린다는 명확한 컨셉, 개관준비단계에서부터의 시민과의 협동, 학교를 타겟으로한 집객방법 등, 전략성에 있어서 크게 배울점이 있다>라고 말한다.

마치즈쿠리의 기본은, 시민이 즐길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관광지으로써의 매력도 높아지지 않는다.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은 그 계기를 가져오는 힘이 된 것이다.